광주·전남 저축銀 자산건전성 양호

3월 수신액 전국서 광주만 늘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 저축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전국 상호저축은행의 월별 수신액 추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지역이 수신액 감소라는 악재를 겪었지만 광주지역은 유일하게 수신액이 증가했다.

지난 3월 광주지역 저축은행의 수신액은 9708억원으로 전달(9690억원)보다 18억원이 늘었다.

반면 서울(-4126억원), 부산(-1798억원), 인천(-649억원), 대구(-447억원), 경기(-266억원), 충북(-205억원), 전북(-145억원), 대전(-131억원) 등 15개 시도가 예금인출 사태를 겪었다.

전남의 경우 지난 3월 수신액이 한 달 사이 75억원이 빠져나갔지만 이는 강원(-7억원), 경북(-29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낮은 수치다.

특히 대부분 지역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꾸준히 수신액이 줄어들고 있지만 광주·전남은 다른지역 보다 감소폭이 적었다. 광주·전남지역 저축은행들은 최근 구조조정 직격탄을 피한데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자산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해 우려했던 대량예금인출(뱅크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경영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지역 저축은행들의 BIS 비율은 평균 11.72%로 금융당국이 우량 저축은행으로 판단하는 기준인 'BIS 비율 8% 이상' 조건을 충족했다.

BIS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센트럴저축은행으로 22.91%를 기록했으며, 대한(9.88%), 스마트(8.32%), 무등(8.29%), 동양(7.01%), 골든브릿지(6.9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역 저축은행의 경우 규모가 적다보니 상대적으로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높게 나오지만 실제 다른 지역보다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골든브릿지저축銀 감자…재무구조 개선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자를 결정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지난 10일 자 공시를 통해 "보통주 2.2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관계자는 "감자결정은 재무구조의 개선을 통해 고객 신뢰도를 제고하고 자산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며 "감자 결정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여수에 본점을 두고 지난 40여년간 여수시민의 동반자로 함께 해온 금융기관으로 최근 20여개의 대형, 소형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는 상황에서도 굳건히 운영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

금호타이어-관광공사 업무협약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와 한국관광공사는 16일 서울 금호아시아나 본관에서 여행 콘텐츠 및 정보 활용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 마케팅을 펴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닥터 트래블'을 활용해 여행 정보는 물론 타이어 안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금호타이어 제공〉

中企 서포터즈 발대…금형산업 업무협약

광주은행 중소기업 주간 맞아 다양한 지원행사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제24회 중소기업주간행사' 기간에 맞춰 'SRP'(중소기업 금융전문가)발대식과 함께 '금형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행사를 펼친다.

지난 16일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선정된 'SRP'(중소기업 금융전문가)42명이 중소기업의 서포터즈 역할을 다짐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 지난 16일 SRP를 선정, 발대식을 갖고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우수 전문영업인력 42명을 37개 영업점에 배치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적극적인 금융지원, 본부부서와의 정보 공유 및 의견개진 등 중소기업의 서포터즈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17일 광주시 전략업종인 금형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평동공단 소재 한국금형산업진흥회에서 '금형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금형산업체에 대한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하고 수출환가료 및 외환거래 관련 각종 수수료를 우대 적용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이어 송기진 행장은 첨단지구에서 우수중소기업 CEO초청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21개 업체 CEO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광주은행 본점에서 우수 중소기업 실무자들을 초청해 세무, 금융상품, 외환 관련 강연회를 개최한다. 광은리더스클럽 회원사를 비롯해 광주은행을 거래중인 우수 중소기업 임직원 약 70여명이 참석해 열릴 강연회에서는 세무 및 금융상품, 외환 관련 현업 전문가를 초빙해 최신의 실무자료를 중심으로 특강이 열린다.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은 매년 중소기업 주간을 맞이해 다양한 지원행사를 펼쳐왔다"며 "특히 올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공생경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양도세 대상 3만4000명에 납부 안내문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 4000명(광주전남 6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경우다. 올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의무화제도 정착으로 작년(4만 300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 /최재호기자 lion@

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

청소년 기능체험 캠프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창구)는 18일 대성직업전문학교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능을 체험하는 '청소년 기능체험 캠프'를 연다. 이날 캠프에는 광주 서강중학교 학생 60명이 참여해 제과·제빵·화훼장식 등을 전문가의 지도로 직접 만든다. 또 금속도장분야 대한민국 명장인 김국상 기아차 광주공장 기장을 초청해 성공담과 직업진로에 대해 강연을 듣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고 휴대폰 새 것처럼

KT 클리닉 서비스

중고 휴대전화도 깨끗이 세척하고 점검받아 새 것처럼 쓸 수 있게 됐다.

KT(회장 이석채)는 다음달부터 중고폰의 상태를 진단해 외관을 세척하고 기능을 점검해주는 '올레그린폰 클리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중고 휴대전화의 매입 모델을 다양화하고 보상등급을 확대하는 등 '올레그린폰' 서비스도 개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지석천·보성강·섬진강 등 지류·지천 살리기

전남·북 올 9건 2226억원 투입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4대강 사업 후속으로 지석천·보성강·섬진강 정비 등 지류·지천사업을 본격화한다.

익산국토청(청장 김일평)은 16일 올해 2226억원을 투입해 지석천 도곡지구 등 전남·북지역 지류·지천 9건의 신규사업을 조기 발주해 6월 말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표〉

이 사업은 4대강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2020년까지 샛강형 수로 및 자전거 길 설치 등 다양한 생태하천 환경을 조성한다.

전남지역은 영산강의 지류하천인 지석천과 고막원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총 3680억원이 투입된다. 전북지역은 새만금 상류인 만경·동진강에 6298억원을 투입해 홍수 예방 및 친환경 공간을 조성한다. 이 중 올해 사업지구는 지석천 화순 도곡지구와 나주 1·2지구, 보성강 곡성 압록지구와 순천 주암지구 등 9건이다.

익산국토청은 특히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40% 이상으로 높이고, 건설 자재와 장비를 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2012년 신규사업 현황

공사명	하천명	사업량(하천정비)	사업비(백만원)	입찰공고 예정일
내월 및 향가지구	섬진강	0.9㎞	9,143	6월1일
도곡지구	지석천	7.6㎞	22,908	5월25일
춘포지구	만경강	4.1㎞	30,550	6월1일
저산지구	만경강	2.9㎞	26,779	〃
남원지구	요 천	9.5㎞	8,069	7월 초
압록지구	보성강	11.8㎞	31,905	10월 초
주암지구	보성강	10.8㎞	29,435	〃
나주1지구	지석천	5.6㎞	41,352	〃
나주2지구	지석천	9.3㎞	22,478	〃
계	9건		222,619	

박명주 익산국토청 하천국장은 "4대강 사업의 후속인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통해 오염되고 방치됐던 지역 하천은 홍수와 가뭄에 안전하고, 지역주민들이 즐겨찾는 문화·생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年700만건 보험해지…되살릴수 있다

금감원 부활 안내 공지

보험료 연체나 압류, 모집인의 부당한 권유 등으로 해지당한 보험계약도 되살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공지한 '보험계약 부활 관련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안내문에서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연간 7백만건 이상 발생한다면서 해지된 계약을 다시 살리는 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이면 7일) 이상의 납입최고 기간을 정해 계약자에게 해지를 알려야 하고 이 기간에 사고가 생기면 보장받을 수 있다.

연체로 해지된 계약은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해야 하고 이 기간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보험료와 보장 수준이 기존 계약과 같아진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부활 제도도 있다.

보험모집자가 부당하게 권유한 탓에 해지된 계약은 6개월 안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840.53 (-58.43)
▼ 코스닥지수 465.01 (-15.49)
금리 (국고채 3년) 3.38%
▲ 원·달러 환율 1,165.70원(+11.6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